

美 太陽에너지開發積極

— '80年度豫算에 約 6億弗計上—

美國에너지省(DOE)은 1979年 7月부터 開始된 80年度豫算에 太陽에너지技術開發費條로 무려 59,700萬달러 (2,980億원)를 計上 하고 있다.

79년도예산에 比하여 13%가 增加된 이 개발예산은

- ① 캘리포니아州 파스트에 10,000kw出力 太陽熱콜렉터建設繼續事業費로 3,700만달러
- ② 光電池材料와 시스템改良研究費로 4,700만달러
- ③ 風力發電機 MOD-2의 건설 비로 1,700만달러
- ④ 海洋熱에너지 (溫度差發電) 플랫폼의 完成과 關聯裝置開發費로 2,300만달러
- ⑤ 바이오매스의 蒐集, 輸送, 燃料가스에의 轉換 등 綜合利用費에 47,300만달러를 각각 計上하고 있다.

事業에 대한 效果는 農業, 工業用프로세스피트, 冷暖房시스템의 개발을 中心으로한 短期的인태양에너지의 經濟的, 制度的인 障礙要素를 除去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

太陽熱의 물히터壁

—佛, 住宅등에 勸獎決定—

프랑스의 太陽熱委員會(COMF

S)는 太陽熱住宅을 普及하고자 태양열에 의해 물의 溫度를 높이는 물히터壁의 建築을 勸獎키로 決定하였다.

물히터벽의 特徵은 熱吸收力이 강하기 때문에 벽속의 물은도가 집전체에 필요한 온도만큼 올리는 時間이 빠른 점이다.

프랑스정부는 2000年代初까지 전체에너지소비량의 2~5%를 태양열로 代替하는 計劃을 세워 주택이나 아파트, 工場등에 권장하기로 方針을 이미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

오뚝이와 다루마玩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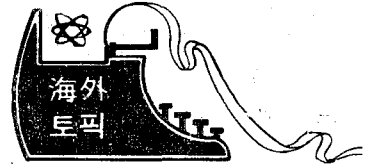
—印度 達磨大師에서 由來—

“오뚝이”하던 먼저 장난감으로 머리에 떠오르지만 날리는 商標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오뚝이가 우리나라에서의 紀元은 分明치 않으나 그 由來를 굳이 찾는다면 옛 中國에서부터가 아닐까한다. 옛날부터 中國의 장난감에 “不倒翁”이란 白髮老人形態의 앉음세 白髮翁形의 玩具가 있었다.

이 장난감이 그후 韓國에서는 오뚝이가 되었고 日本으로 건너가서는 다루마(達磨)가 되었다. 그 年代는 足利末期이고 江戸時代에 日商들이 不屈의 象徴으로 愛用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오뚝이 즉 不倒翁을 구태어 다루마(達磨)로 붙여 商



品化한 動機는 菩提達磨圓覺大師에서 緣由한다. 이 達磨大師는 南部印度胎生이며 大乘佛敎를 修道하고 西紀 470年쯤에 中國으로가서 崇山 少林寺에 들어가 壁을 향하여 무려 9년이란 긴 歲月을 한결같이 坐禪하여 中國禪宗의 始祖가 되었다는 佛說이다. ♣

소유즈33號 軌道進入失敗

—2배의 重力서 겨우 歸還—

蘇聯이 지난 4月 10日에 發射한 소유즈 33號는 앞서 발사한 사류트 6호 및 소유즈 32호의 連結體와 도킹하려하였으나 重力關係로 失敗하고 2일 후에 地上으로 歸還하였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소유즈 33호에는 소련의 루카비시니코프가 船長이 되었고 불가리아의 이와노프飛行技師가 同乘하였으나 推進시스템의 不調로 大氣圈에 突入할때 平常의 2배에 해당하는 8G의 重力이라는 매우 危險한 環境에서 겨우 목숨만 維持된채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